여야 도돌이표 공방에 국회 공전 장기화

민주, 조건없는 개회 요구에 한국당 특검·국조 요구 일관
원내대표 빈손 회동…문 의장 "싸우더라도 국회 열어야"

닷새간의 설 연휴 냉각기를 거쳤음에도 여야의 이견은 컸다. 민생을 돌봐달라는 설 민심의 외침도 소용 없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두 차례 회동했지만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에 '정쟁을 멈추라' 고 요구했고, 자유한국당은 여당이 비협조적이라며 '과연 국회가 열리길 원하느냐' 고 반문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현재 우리 국회는 비정상적이다"며 "싸우더라도 국회는 열고 싸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지만 협상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조건 없이 정상화하자고 했는데, 받아들여 지지 않아 회동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전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야당 요구를 무시하고 '모르쇠' 하는 일관된 행동에서 벗어나 국회를 다시 정상화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한국당이 요구하는 '정쟁용 국회' 가 아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손 의원 의혹을 다룰 국조에 반대하면서 의원들의 이해충돌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국조가 필요하다"면서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위 설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재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지 결의안을 내자고 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10~17일 예정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방미 외교 활동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이 생겼다.

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교착 정국이 풀리지 않으면 방미에 동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17일 야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6일까지다. 여야는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1월 내 처리하자고 협의했던 '유치원3법' 과 '체육계 성폭력근절법', '임세원법' 등이 모두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이날 협상도 실패하면서 2월 임시국회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극적인 국회 정상화 합의 도출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진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북미회담 성과 낼 것" … 평화 드라이브로 악재 돌파

상반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종전선언 등 관심사 해결 기대
한국당 '날짜 음모론'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실형 선고에 이르기까지 각종 악재가 돌출한 상황에서 '평화 드라이브' 로 난국 돌파를 시도하고 나섰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지렛대 삼아 야권의 협조를 요구하며 정국 주도권을 갖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관계 개선과 비핵화 논의의 출발을 알리는 만남이었다면 2차 회담은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담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다시 없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구체화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도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6자회담 당시 한국 측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의원은 "지금 진행 중인 실무회담에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라며 "2차 북미회담에서 북한의 핵활동 중단과 영변 핵시설 영구폐기 합의가 이뤄지면 미국은 제재 유예 또는 완화를 하는데 이어 한반도 종전선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철도도로연결 등 우리 관심사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민주당 故 김용균씨 빈소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 조문을 위해 빈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비관적으로 보는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에도 열을 올렸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이벤트로 언급하는 걸 보면서 한국당은 냉전시대의 유물로, 화석으로 남아있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북미회담 날짜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홍준표 전 대표에 어느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당 차원의 지원에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칫 법원 판결에 대한 집단 불복으로 비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당 등 야권은 민주당이 '김경수 구하기' 에 혈안이 돼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공격하는 상황이다.

애초 이날 오전으로 예정된 이해찬 대표의 김 지사 접견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도 여러 중진의원의 만류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 총리 "북미회담, 평화 정착 진전 기대"

국무회의 주재…"광주형 일자리 협약, 노사 상생모델 탄생"

이낙연 국무총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확정과 관련 "양측이 실무협의를 오래 해온 점에 비춰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과거에 묶여 있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총리는 "우리 사회에도, 국민 개개인의 의식에도 과거와 미래가 갈등하며 공존한다"며 "한편으로는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에 발을 딛고 서서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나아가야 한다"며 "과거가 미래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오래 모색해 온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마침내 탄생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노사 및 광주시민과 함께 성공시키면서 제2, 제3의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초당적 협력을"…야 "新 북풍 우려"

북미회담 일정 발표 반응

여야는 설 연휴가 끝난 첫날부터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것으로 발표된 북미정상회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으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新) 북풍' 을 기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수구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으로는 평화를 끌어낼 수 없다"며 "야당도 평화의 길을 여는 데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지난 1년간 평화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말처럼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갈 수도 있었다"며 "한반도 평화를 이룰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지방선거 때 재미를 본 정부·여당이 혹여라도 내년 총선에서도 신 북풍을 계획한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북미정상회담 날짜와 관련 "한국당 전당대회(2월27일) 날짜와 겹친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것이 의심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한국당의 이런 '의심' 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정선 대변인은 "북미회담 날짜를 놓고 한국당의 상상력이 가관"이라며 "아무리 정쟁에 눈이 멀었어도 한반도 평화에 재뿌리는 몽니는 삼가야 한다"고 꼬집었고, 김정현 대변인은 "냉전시대 프레임에 얽매여 있으면 우물 안 개구리 신세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초당적 협조를 제안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오세훈 "박근혜 벗어나야 보수 부활"

한국당 당 대표 출마선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7일 "이제 우리는 '정치인 박근혜' 를 넘어서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해야 한다"라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영등포 당사에서 가진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통해 "국민적 심판이었던 탄핵을 더는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시장은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는 국민들 바람에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헌법적 가치에 부응하게 사용하지 못했다"며 "우리 당에 덧씌워진 '친박(친박근혜) 정당' 이라는 굴레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일가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자 스스로 '나를 버리라' 고 했다. 그런 결기가 없었다면 그들이 지금 집권할 수 있었겠나"라며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보수정치는 부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수대통합에 대해서 "보수우파 중심으로 보면 오른쪽 끝에 황교안 후보가 있다면 왼쪽 끝 중도층에 가장 가까운 곳에 제가 포지셔닝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에 몇분 남아있지 않다. 그분들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임야
단독
섬
■ 바로 삽니다!
■ 전남/북지역/지분 환영
■ 1억원 이하
■ 당일 매입 가능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 현경면 시골주택 대지 691㎡ 주택 63㎡ 3500만원
• 화순군 동면 서성리 656㎡ 경관 아주좋음 1억1880만원
• 별장 나주시 다시면 대지 450㎡ 시설·환경 좋은 2층 97㎡ 3억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음 1130㎡ 1억2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1728㎡ 전원주택·주말농장 적합 1억7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음 바다인접 4억8천
• 무안읍 원룸·다세대부지 군청 옆 1031㎡ 투자에도 좋음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서구 쌍촌동 운천저수지 부근 2층 주택 땅 105㎡ 새주택 118㎡ 2억6천
• 장성 남면 덕성리 주거지 588㎡ 광주인근 교통좋음 1억8500
• 강진군 드림팜핑관광농원 땅 10194㎡ 시설완비 6억5천
• 무안군 삼향읍 왕산리 4861㎡ 창고·가든·매장 등 적합 6억
• 무안 청계 목포대학부근 주거지 답 4413㎡ 은행 2억4천 매도 7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접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옥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화정동 건물 대지 388㎡ 건평 581㎡ 보증금 1억2천 월 700선 수입 13억8천
• 완도읍 정도리 땅 4024㎡ 건평 1203㎡ 연수원 등 적합 9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접 토지 155㎡ 건물 4층 263㎡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농성초부근 2차선접 상가주택 땅 172㎡ 건평 279㎡ 4억5천
특급물건
• 충장로 5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2억 전세 1억8천 월 1100. 25억
• 목포시 상동 땅 1683㎡ 건평 1190㎡ 은행 3억8천 노인시설 적합 10억
• 정읍시 신태인읍 1213㎡ 감정 6억4천 다세대 적합 은행 3억7천 매도 4억3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